



# 청정의 바다, 어시장, 대게 삶의 향기가 있는 영덕

강 욱  
자유기고가

경북 영덕(盈德)은 명산 절경과 동해의 푸른 바다가 함께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으로 사계절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산에 가리고 바다와 가까운 외진 고장이다.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그리 춥지 않으며, 여러 가지 물고기와 전복, 해삼 같은 해산물이 푸짐하게 난다. 주민들은 살림살이가 넉넉해 집집마다 거문고를 갖고 있고 그 줄을 고르는 솜씨가 빼어났으며, 노래는 맑고 춤은 아름다웠다. 정자와 누대가 어울려 선 풍경은 마치 선경을 닮았다.”

조선 왕조 초기의 학자인 권 근이 영덕 지방에 귀양왔다가 남긴 「수루기」라는 책에서 이 지방을 이렇게 그려 놓았다. 그는 고려 말의 이름난 학자인 이 색의 제자였는데 이 색의 외가 곳이 바로 이곳 영해면 괴시동이기도 하다. 영덕 지방은 예로부터 여러 씨족이 터를 잡고 살아 온 살기 좋은 땅이었다. 이 군의 영해면, 병곡면, 창

수면, 축산면 같은 곳에는 4백년쯤의 세월을 지켜 온 옛 양반마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지금은 쇠락하여 이끼 낀 옛집만이 쓸쓸히 남아있지만 예로부터 안동 못지 않게 예를 숭상하고 풍속이 엄격하여 ‘작은 안동’이라고 불릴 만큼 이 곳에선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경상북도 동북부에 위치한 영덕은 포항시와 울진군, 영양군, 청송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강원도 태백산맥의 기운을 이어 받은 해발 오백 미터에서 팔백 미터쯤까지의 칠보산, 팔각산, 등운산, 형제봉, 명동산들이 이 군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이 산에서 흘러내린 작은 내들은 송천과 오십천을 이루고 영해면과 영덕읍 언저리의 논밭 수십만 평을 적시며 동해로 흘러든다. 동해 쪽으로는 단조로운 해안선 53km를 끼고 있다. 이 곳은 수정같이 맑은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해변 드라이브 코스가 압권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치를

자랑한다.

영덕군은 식민지 시대인 1914년에 행정 구역이 개편되기 전까지 영덕군과 영해부로 나뉘어 있었다. 옛 영덕군은 지금의 영덕읍과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을 포함한 지역으로 본디 고구려의 야시홀이었다가 통일신라 때에 야성군, 고려초에 영덕이라고 불렸다. 그러다가 고려 현종 때에 예주로 불린 영해에 속하여 감무가 설치되었고, 조선 왕조 태종 15년인 1415년에 현이 되었다가, 1894년에 군이 되었으며, 1914년에 영해부와 합쳐진 것이다.

영덕 지방은 대한 해류의 영향으로 경상북도에서 날씨가 가장 따듯하다. 한 해의 평균 기온이 섭씨 13.2도로 봄철은 동남풍, 겨울철은 서북풍이 심하게 불며 가을이 길고 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영덕군의 농산물로 손꼽히는 것은 1957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복숭아다. 복숭아는 이 지방의 토질과 기후에 맞아 재배면적이 갈수록 늘어났다. 오십천을 중심으로 주변 양질의 사질토에서 재배되는 영덕의 복숭아는 각종 비타민과 당도가 뛰어나 그 맛이 일품이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대부분은 강구항과 축산항, 그리고 병곡면 대진항 부근에 흩어져 살고 있다. 영덕군의 가장 큰 어촌인 강구항은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의 촬영지로 근래에 더욱 유명해졌다. 강구항은 몸집이 보통 게의 서너곱이 되고 맛이 뛰어난 영덕 대게와 은어와 정어리의 어장으로 이름 높으며 전국에서 갈매기가 가장 많은 항구이기도 하다.

영덕 대게의 집산지 강구항은 물 좋고

싱싱한 생선회를 마음껏 먹고 싶은 식도락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행지이다. 매일 새벽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십대의 수족관 차들이 몰려들 정도로 활어의 어획량이 많다. 게다가 80여 곳의 간이 횃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풍물거리가 볼만하다. 전통 오일장인 강구장은 옛날엔 대게가 온통 시장을 메우고 있었지만 요즘은 농산물, 과일, 채소류가 점차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덕 대게는 다리가 대통처럼 길다고 해서 대게라고 불리는데 삼십 년 전만 해도 영덕읍과 강구면의 시장에 산더미처럼 쌓일 만큼 많이 잡혔었다. 특히 바다 밑바닥에 개흙이 전혀 없고 깨끗한 모래로만 이루어진 영덕의 강구면과 축산면 사이 앞바다에서 3~4월에 잡힌 것이 타지역산 보다 맛이 뛰어나 명성이 높다. 대게는 껍질이 얇고 살이 많은데 특히 다리의 살이 쫄깃쫄깃하다. 그리고 그 살맛이 담백하면서도 독특한 향기가 나 뒷맛이 무척 개운하다. 큰 것은 찌먹고 작은 것은 간장에 졸이거나 고추장을 풀어 끓여 먹기도 한다.

남쪽에서 알에서 깨어나 한류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오는 명태는 북한 수역에서 성어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이곳 어부들이 새끼 때부터 잡는데 이것이 바로 술안주로 쓰기도 하는 노가리다. 또 쥐치는 생김새도 볼품이 없고 쥐처럼 짹짹 재수가 없다고 하여 예전에는 그물에 걸려도 버리던 하잘 것 없는 잡어였으나 가공법이 개발된 뒤에 포로 떠서 팔려나간다. 노가리와 쥐치는 이곳 어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영해면에서 동남쪽으로 이십리쯤 떨어진 축산항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천연적인 항구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항구지만 수백 척의 배들이 몸통과 몸통을 맞대고 줄줄이 늘어서 있고 갈매기 떼 또한 엄청나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포구를 들락거리는 배들과 어부들의 활기찬 모습은 포구의 참 정취를 느끼게 한다. 축산항의 자연 방파제 구실을 하며 등대가 서 있는 죽도는, 비록 오늘날에는 육지와 이어진 곳이지만 먼 옛날에는 이름 그대로 대가 우거진 섬이었으며 몇백년 동안 영해부에서 썼던 화살을 모두 이 섬에서 대었다고 한다.

축산면 와우산의 남씨 유허비가 말해 주듯이 죽도는 의령 남씨와 영양 김씨의 조상이 표류해 와 살았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서기 775년 신라 경덕왕 14년에 일본으로 가던 당나라 현종의 사신이 태풍을 만나 축산에 표류했는데, 경덕왕이 그가 남쪽에서 왔다고 하여 남씨라는 성을 주었으니 그가 의령 남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 사신의 아들 하나는 본디 제 성인 김씨 성을 고집하고 죽도에 들어가 살아 영양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우연히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된 당나라 사신의 자손인 남씨 가문에는 역사에 자취를 남긴 인물이 여럿 있다. 이를테면 조선 시대에 들어서 왕자의 난 때에 방원에게 죽은 남 은, 예종 때에 스물일곱살로 병조판서를 지낸 남 이, 생육신 남효운, 임격정을 잡은 관군의 우두머리 남치근,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로 시작되는 시조를 지은 숙종 때의 영의정 남구만 같은 이들을 들 수가 있다.

청정의 동해바다와 태백 줄기의 끝자락이 맞닿은 영덕 땅에는 도처에 불거리가 참 많다. 7번 국도를 기점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장엄하게 우뚝 솟은 칠보산이 자리잡고 있다. 돌옷, 더덕, 산삼, 황기, 멧돼지, 구리, 철 등 일곱가지 보물이 풍부하게 난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상에 오르면 동해의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고 칠보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여름철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산자락에 들어선 통나무집에서는 방안에서도 동해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칠보산 중턱에는 고찰 유금사가 자리 잡고 있다. 유금사는 신라 선덕여왕 20년인 서기 537년 자장법사가 창건한 사찰로 그 후 여러 번 중수를 거쳤다. 이곳 대웅전 뒤뜰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보물 제674호 3층 석탑이 아름다운 조화미를 자랑하며 서 있다. 또한 이 절은 갖가지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신라말엽 경순왕의 첫째 아들 김일(마의태자)과 혼약을 했던 ‘장화’라는 여인이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들어가자 이곳에서 신령각을 짓고 마의태자를 위해 밤낮으로 축원하다 죽자, 보살들이 장사를 지내고 묘패를 세웠다고 전하며 지금도 묘패를 세운 석축이 남아있다.

장육사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55년에 나옹선사가 창건한 고찰로서 운서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대웅전은 조선 중기에 중

건한 건물로 여겨지는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단층 겹처마집이다. 대웅전 벽면에는 재미있는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고 홍연암, 산신각, 금당, 요사채와 보물 제1933호인 건칠좌불상이 모셔져 있다.

7번 국도를 따라 포항에서 영덕으로 30분쯤 차를 타고 가다보면 경보화석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이 박물관이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화석박물관으로 세계 20여개국에서 모은 화석 1,5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150여평의 실내전시관과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전시관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영덕읍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영해면 해안마을인 대진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진 대진해수욕장은 울창한 송림과 4km에

이르는 백사장과 함께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바닷물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이 밖에도 장사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 등이 영덕의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하다.

강구항에서 축산항까지의 26km에 이르는 918번 해안도로는 탁 트인 동해바다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환상의 드라이브코스다. 아름다운 바다와 빼어난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안선 곳곳에는 야생꽃길과 소공원,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방파제 등이 조성되어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삼사해상공원은 바다가 중심이 되어 둥근 타원형으로 어촌마을을 품에 안고 있다. 빼어난 바닷가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겨도 좋지만 정다운 이들과 다정히 손잡고 걸어보면 삼사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 🍵